

오기모리이나리 신사

오기모리이나리 신사는 다케타시에서 가장 큰 신사로 규슈에서도 가장 유명한 이나리 신사 중 하나입니다. 이나리 신은 벼농사를 관장하여 풍작을 선사하고 지역 사회를 수호하는 신으로 여겨집니다. 많은 이나리 신사에서 볼 수 있듯이 오기모리이나리도 신도들이 봉납한 많은 주홍색 도리이가 참배길에 늘어서 있습니다. 경내에는 이나리의 사자로 여겨지는 크고 작은 여우상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1616년에 오카번(오늘날의 다케타시) 번주, 나카가와 히사모리(中川久盛, 1594-1653)가 산 중턱에 작은 사당을 만든 것이 이 신사의 시작입니다. 현재의 신사는 히사모리의 자손인 히사아키(久昭, 1820-1889)가 오카번을 다스리던 1800년대 중반에 만들어졌습니다. 히사아키가 에도(오늘날의 도쿄)로 여행을 떠나기 전에 꿈에 이나리가 나타나 자객의 습격을 주의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이나리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오기모리이나리를 설립했다고 전해집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며칠 동안은 규슈 각지에서 한 해의 성공과 수호를 기원하는 참배객들로 붐빕니다. 그 이외의 시기에 오기모리이나리 신사를 방문하면 보다 평온하게 참배할 수 있습니다. 신사로 이어지는 돌계단 위에서는 다케타 마을을 한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